

Delong의 지표적 고찰에 따른 형태적 과장 현상과 유형 분석 연구: 근세 · 근대 복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ype Analysis and the Formative Exaggeration Phenomenon in
Fashion through Indexical Consideration of Delong's Theory:
Focus on 16th to 20th Century Women's Costumes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배정민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Doctor : Jungmin Ba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Delong의 지표적 고찰에 따른 형태적 과장 현상과 유형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근세 근대 복식에서 보여지는 형태적 과장현상 | 참고문헌 |

<Abstract>

The formative exaggeration phenomenon, which makes the plastic space, escaping from the form peculiar to the human body, is being developed into the more diversified and abstract structure. This study analyzed the form and shape of costumes with objective attitude through the use of an oppositional concept method, which Delong presented from the formative viewpoint. Delong's theory, which wa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one index that analyzed the form and shape of costumes. The costumes of the Renaissance Era, in which formative exaggeration is remarkable, are determinate in that they are closed and static, and can be classified into part, planer separation, and flat. The costumes of the Baroque and Rococo Eras are divided into similar formative perspectives, and can be said to be open, whole, and integrated due to indeterminate and diverse decorations. Entering modern times, the formative-exaggeration phenomenon in costumes of the Romantic Era are characterized by closed, part, and planer separation similar to costumes of the Renaissance Era. However, in the aspect of sleeve design and deco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determinate and indeterminate were considered.

주제어(Key Words) : 과장현상(exaggeration phenomenon), Delong이론(Delong's theory), 근세 · 근대 복식
(16th to 20th century women's costumes), 유형분석(type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Jungmin Bae,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302, 501-2, SangDo1-Dong, DongJak-Gu, Seoul, 156-830, Korea Tel: +82-10-2558-7871 Fax: +82-31-676-9932 E-mail: diana79@paran.com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균형잡힌 비례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미를 느끼고 표현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체의 비례는 시대, 민족, 개인의 취미 등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수치는 없었고, 비교적 이상적인 수치만이 존재하여 왔다. 이렇듯 절대적 수치가 아닌 이상적 수치가 가지는 왜곡과 과장은 올바른 형태에서 변화되어 시각의 항상성을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복식의 과장 현상에 내재된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체 고유의 형태를 벗어나 과장된 형태로 인지되는 복식을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체의 형태를 벗어난 복식의 형태를 Delong의 관점을 지표적으로 고찰하고, 복식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된 시각적 결과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복식의 형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Delong의 복식조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통하여 본 연구의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복식의 형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방법으로 조형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술사의 기초개념에 대한 형식적 양식사를 다룬 Wölfflin의 형식주의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복식조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Delong의 형태적 개념 쌍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복식의 형태적 과장현상으로 근세·근대 역사복식을 Delong의 복식 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한다. 셋째, Delong의 분류에 따라 고찰된 역사복식에서 보여지는 형태적 과장 현상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형태적 과장 현상을 Delong의 객관적인 접근법을 지표로 고찰한 연구이다. 형태적 과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장 형태의 근원인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부터 아르누보(Art Nouveau) 시대까지의 역사 복식을 Delong의 형태적 분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역사적 고찰은 문헌을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가 중심이며, 연구 범위 시점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아르누보 시대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첫째, 복식의 형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면서 복식 형태의 변화는 인간 중심의 미의식과 이전 시대의 복식에 비해 발달한 재단법으로 입체적인 복식을 제작할 수 있었다. Laver(2002, p. 62)는 재단법의 발달로 입체적인 인체 중심의 복식이 시작된 르네상스 시기의 복식의 과장 현상

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역사 복식의 과장현상은 대체적으로 르네상스 스타일부터 아르누보 스타일까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역사적 고찰의 범위를 르네상스 시대부터 아르누보 시대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아르누보 시대까지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이미지는 시각적 조형성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회화, 풍자화, 유물, 역사 복식을 재현한 복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형태적 과장 현상에 대한 개념

과장(誇張, exaggeration)은 일반적으로 물체가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되었던 것을 말하며, 과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냄을 의미한다(디자인사전, 2002). 광의의 의미에서 과장의 의미는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되고 팽창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부피를 축소시킨 것으로 왜곡·확대·축소의 의미를 포괄한다. 복식에 있어서 과장은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인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왜곡됨을 의미하며, 시각적 인지에서 크고 지나침이 확연히 구분되는 복식의 형태로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한다. 또한 복식의 부분에서 흥미 중심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의 부위를 지나친 노출이나 과장, 왜곡 등 조형성을 지닌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2003). 본 연구 내용에 적용하는 과장의 개념은 인체 위에 입혀지는 복식을 관찰하였을 때 복식이 인체의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 확장을 형성하는 현상이라고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Davis(이화연, 손희영, 노희숙 역, 1990, p. 78)는 시각적 인지력에 있어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형이나 인체를 내부로 축소시킨 오목한 것보다 공간적으로 볼륨이 있는 볼록한 것이 공간과 입체의 확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과장의 광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왜곡·축소의 의미를 제외한 복식 공간의 확장으로 지각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한 과장 현상의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2. Delong 이론의 일반적 배경

복식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은 착장 여부, 착장방식, 복식 자체의 구조적 특성, 인체와의 관련성, 복식을 통한 공간, 관찰자의 시지각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Delong(금기숙 역, 1997, p. 15)은 인체에 착장된 상태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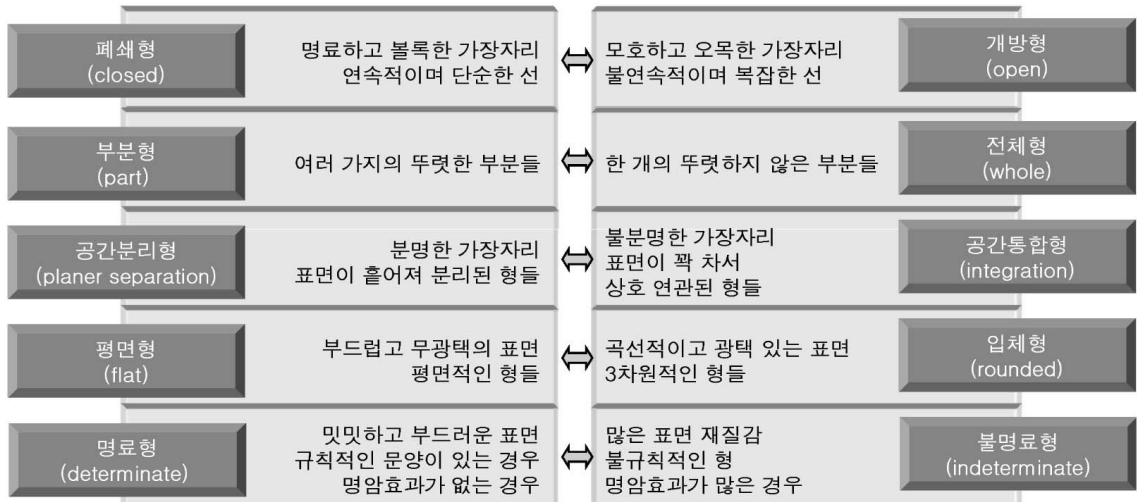
식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자의 시지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체적 관찰 방법인 형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 복식의 가시적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양식사에 대한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태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성질을 일정한 개념 체계인 형식적 양식사로 확립한 사람이 Wölfflin이다. 그는 예술 작품을 직관적인 형식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예술사 서술에 있어서 ‘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형식주의 방법론은 형식 분석을 통해 어떻게 각 요소들이 작품에서 미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하는가를 고찰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Wölfflin(박지형 역, 2006, pp. 13-14)은 한 시대의 조형예술들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모두가 동일한 ‘시각적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시각적 도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Wölfflin이 제시한 시형식을 복식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복식학자는 Delong을 들 수 있다. Delong은 복식을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부각시켜 고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Delong은 의복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인체와 그 위에 착용된 의복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의복과 인

체가 구성하는 구조(apparel-body construct: ABC)를 하나의 시각 형태(Visual Form)로 정의내리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ABC에 대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관찰을 실시하였다 (Delong, 금기숙 역, 1997, p. 7).

Delong이 Wölfflin의 시형식을 근간으로 도출한 복식조형을 보는 다섯 가지 대립 개념은 다음과 같다.^{1,2)}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Wölfflin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Delong의 연구를 분류를 위한 지표적 틀로 제시하였다. 앞서 고찰한 Wölfflin의 연구는 어떤 조형물의 형식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안한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Wölfflin의 이론은 16세기와 17세기의 미술양식에 국한된 이론이다. 그의 이론을 그대로 복식에 적용하였을 때 복식과 미술 양식과의 특징적 차이 때문에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본 연구는 Wölfflin이 제시한 시형식을 복식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복식학자인 Delong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형태적 과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역사 복식을 분석 할 수 있는 준거 틀로 설정하였다.

〈표 1〉 Delong의 다섯 가지 대립 쌍을 통한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1) 본 연구에 Wölfflin과 Delong의 연구는 1차적으로 그들의 저서인 “Wölfflin, H.(2006)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München: Schwabe & co. **미술사의 기초개념: 근세 미술에 있어서의 양식발전의 문제**. 박지형(역). 서울: 시공사. (1984년 원저발간), Delong, M. R.(1997) *The Way Look*. Iowa: Iowa Univ. Press.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역). 서울: 이즈. (1987 원저발간).”을 중심으로 고찰되었고, 이후 부족한 설명은 각 학자들을 연구한 학위 논문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2) Wölfflin의 다섯가지 대립 개념은 ‘선적/회화적, 평면/입체, 폐쇄/열린, 다원/통일, 명료/불명료’이며, Delong의 이론과의 대입을 살펴보면, 선적/회화적은 공간분리/공간통합과 평면/입체는 평면/입체와 폐쇄/열린의 경우 폐쇄/개방과 다원/통일은 부분/전체와 명료/불명료는 명료/불명료에 대입할 수 있다. 두 학자가 제시한 단어의 사용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예술작품의 관찰과 복식의 관찰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근세 근대 복식에서 보여지는 형태적 과장현상

1. 근세 복식의 과장현상

1) 르네상스 스타일(Renaissance Style)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여성미를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허리부위의 축소를 제외하고 다른 부위를 과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과장된 X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실루엣의 과장은 르네상스 양식(Renaissance Style)을 이루게 되고, 스토마커(stomacher)와 파팅게일(farthingale) 등 인체미를 강조하는 인공물이 사용되어 높은 러프칼라(ruff collar)와 함께 과장된 실루엣을 표현하였다(정홍숙, 2002, p. 166).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시형식을 Delong의 분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폐쇄적이고 정적인 명료형이며, 전체형이라기 보다 부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공간 분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입체적인 재단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르셋 장식 등에서 보여지는 평면형을 관찰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소매, 바디스, 스커트, 네크라인(neckline), 러프칼라의 윤곽선이 뚜렷한 개별적인 부분형이며, 명료한 실루엣이 윤곽선을 분명하게 하는 폐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과장된 실루엣은 인체를 완전히 감싸며 뻣뻣한 옷감으로 인한 단순한 실루엣을 형성하므로 폐쇄형 복식에 근접한다. 즉, 딱딱한 실루엣으로 신체를 감싸면서 볼륨감이 강한 폐쇄형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회화 속에서 복식을 착용한 인물의 배경색이나 명도가 복식과 대비를 이루지 않더라도 르네상스 복식의 윤곽선은 그 자체의 형태만으로도 공간과 명확히 분리됨을 알 수 있다.

2) 바로크 스타일(Baroque Style)

초기 바로크 시대의 복식은 재정적, 정치적으로 우세했던 네덜란드의 기능적인 복식에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실루엣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루이 14세(Louis XIV, 1638 ~ 1715)의 즉위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부풀리고 확대된 실루엣은 그대로 지속되면서도 르네상스 시대 복식에 비해 여성의 소매와 어깨, 스커트의 부풀림 등 각 부위의 부풀림 규모는 현저히 감소되어 나타났다(성광숙, 2003).

바로크 시대 복식은 르네상스 시대 복식과는 모든 조형적 측면에서 상반되는 시형식을 나타내었다(신주영, 2007). 폐쇄적이고 정적인 르네상스의 기하학적인 실루엣에 비해 바로크 시대 복식의 실루엣은 불연속적이며 동적이다. 이러한 복식의 윤곽선은 폐쇄적 형태가 아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내부형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윤곽선은 재질과 구조적인 디자인에 의해 스커트의 드레이퍼리에서 불명료함을

드러내고 있어, 열린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라운스(flounce), 러플(ruffle), 리본, 루프와 같은 디테일은 평면으로 보일 수 있는 넓은 면적에 깊이감을 부여함뿐만 아니라 역시 개방형을 강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경숙, 1998). 바로크 시대 복식의 과장 현상은 복식의 개별적인 부분들이 시각적 독립성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부분보다는 전체로 먼저 지각된다 소매, 바디스, 스커트 등은 전체에 종속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지각되는데, 이는 각 내부형의 가장자리 역시 불명료하여 부분들 간의 시각적 융합이 쉽게 일어나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로 인지된다.

3) 로코코 스타일(Rococo Style)

로코코 시대의 복식은 바로크 시대 복식에 비해 섬세하고 우아한 곡선미가 주류를 이루는 복식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특징적으로 한 가지 의상에 조개, 꽃, 깃털, 리본 등 모든 종류의 장식이 사용되었고, 파니에는 이전 시대보다 더욱 극적으로 부풀린 파니에 두블(panier double)로 변화하여 과장 실루엣을 형성하였다(Mackrell, 2005, p. 235).

로코코 시대 복식의 과장 현상은 이전 시대인 바로크 시대와 비슷한 시형식을 갖는다. 로코코 시대의 복식은 이전 시대 복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명료하고 다양한 장식을 통한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로 구성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 공간과 복식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는 개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코코 시대의 복식은 광택 나는 재질을 사용하고 시선을 산만하게 하고 옷감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확장된 공간을 형성하는 개방성을 나타낸다(고경숙, 1998). 특히 로코코 시대의 특징적인 로브 중 로브 아라 볼랑(robe à la volante)에서 보여지는 와토 플리츠는 인체보다 확장된 공간을 형성하며,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을 정확하게 지각하기 어렵게 한다. 로코코 시대의 과장 현상을 개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천을 잘라 주름을 잡아 장식하는 팔발라(falbala), 여러 겹의 레이스로 장식된 앙가장뜨(engageantes), 크기가 다른 리본으로 장식된 에셸(échelle) 스토마커로 이러한 장식은 복식의 가장자리 윤곽선을 고르지 않게 하여 개방형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식의 표면에 불명료함과 깊이감을 부여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김주영, 1992). 18세기 로코코 양식은 로브의 풍성한 볼륨감, 와토 플리츠, 화려한 표면장식으로 인해 특별한 시각적 우선성 없이 모든 화려한 디테일이나 트리밍이 시각적으로 융합되는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다. 즉 개별 부분들 간의 높은 상호 의존성에 의해 나타나는 전체형이며 공간 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코코 시대의 복식의 부분에 다양한 장식이 배치되어 모든 개별 부분이 두드러진 강조점을 갖

지 못하고 형태, 색, 재질의 유사성에 의해 의복 전체에 중속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근대복식의 과장현상

1)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부활한 귀족풍의 생활은 호화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동경하였고, 낭만주의 사조는 복식에 곡선과 부드러운 주름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Boucher, 1987, p. 270). 로맨틱 스타일 복식의 특징은 네크라인을 옆으로 퍼지게 하여 어깨를 많이 드러내 놓고 소매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반면 허리는 가늘게 졸라매고 스커트는 확대하는 과장 현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로맨틱 스타일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과장 현상을 Delong의 분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폐쇄적이고 전체형이라고 보다 부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소매 디자인을 통해 복식은 입체적으로 보여진다. 엠파이어 스타일 이후 소재가 두꺼워지자 주름이 풍성한 드레이퍼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복식의 윤곽선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복식의 구조형이 보다 단순해졌다. 이는 복식의 윤곽선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였고 뚜렷해진 실루엣은 폐쇄형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로맨틱 스타일 복식의 과장 현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명료함의 정도는 떨어지지만 뚜렷한 실루엣에 의한 폐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둥근 형태인 인체의 각 부위는 짙은 색의 적당한 두께를 가진 소재로 만들어진 복식에 의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입체형과 여러 개의 부분으로 지각되는 부분형의 경향을 보인다. 이 시대 복식에 나타난 중첩의 요소는 길게 파인 어깨선을 따라 장식된 여러 겹의 레이스 프릴 등 복식의 내부형에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는 표면의 불명료형의 특성을 가진다.

2)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은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을 재현하고자 하였던 로맨틱 스타일의 복식에 더하여 스커트 버팀대가 부활한 로코코 시대 복식의 재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상류 부르주아의 화려한 생활은 1850년경 스커트를 최대한 부풀려 둘레가 10미터에 달하는 크리놀린(crinoline)이라는 버팀대의 유행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크리놀린은 일반인에게도 크게 유행하였다(Kyoto Costume Institute, 2002, p. 236).

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시형식을 Delong의 분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개방적이고 복식의 실루엣은 불연속적이며 동적이다. 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은 스커

트의 크기를 과장하기 위해 여러 겹의 패티코트를 착용하거나 후에 개발된 크리놀린을 착용하는 방법과 플라운스가 많이 달린 스커트를 착용하여 시각적으로 부피감을 확대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스커트 버팀대인 크리놀린은 구조적 특성상 드레스의 스커트 부분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의 불안정한 실루엣을 만들어 낸다. 착용자의 작은 움직임에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식을 공간으로부터 명확히 분리하여 관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유행 하였던 소재인 툴(tulle)은 화사한 느낌과 여성스러운 섬세함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소재로 툴의 투명도, 드레이프성으로 인해 실루엣은 개방형으로 표현된다. 크리놀린 스타일 복식은 선이 아닌 입체적인 덩어리로 인지되는 전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장식들은 복식과 동일 소재이거나 유사한 성질의 소재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관찰되기 보다는 그 가장자리가 불분명한 전체형으로 인식된다. 또한 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은 로코코 시대 복식과 유사한 양식의 표면장식이 유행하였다. 여성스럽고 화려한 장식을 이용하여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였다. 이는 불명료한 표면과 입체적인 깊이감을 갖게 한다.

3)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1860년대 후반부터 실증주의와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크리놀린의 크기는 현저히 줄었고,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폴로네이즈(polonaise)가 다시 출현하였다. 1860년대 후반 폴로네이즈된 드레스가 유행하면서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을 형성하였다(Boucher, 1987, p. 309). 버슬 스타일은 복식에 있어서 우아하고 화려한 것이 요구되면서도 본질적으로 실용성을 따르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드레이프와 화려한 장식의 버슬 스타일의 과장 현상은 그 움직임에 의해 복식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실루엣을 가지는 개방형이며, 또한 부드러운 소재와 움직임을 통해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간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버슬 스타일의 과장 형태는 복식의 윤곽선이 부분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난 폐쇄형으로 보이는 동시에 인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스커트와 장식으로 인한 개방형으로 관찰되어진다. 실루엣의 관점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이 공존하는 복식의 형태는 1830년부터 여성 복식이 일상복과 야회복으로 구분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복식은 실용성과 활동성, 합리성을 고려한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구조적 형태의 폐쇄형의 특징이, 야회복은 화려함과 장식성이 강조된 비구축적인 형태의 개방형 특성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버슬 스타일의 과장 형태의 특징인 뒤쪽으로 풍성하게 겹겹이 걸여 올린 스커트 자락은 중첩의 효과에 의해 복식을 전체로 인지되고 그 표면을 장식

한 문양이나 장식 역시 명료한 가장자리를 갖지 못해 전체형으로 인식하게 한다. 화려한 레이스나 꽃, 리본 등이 복식의 내부형의 표면을 장식하지만 색이 같거나 소재의 투명성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버슬 형태를 장식한 소재의 중첩에 의해 불명료성의 효과가 나타난다.

4)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

직각으로써 부풀려졌던 버슬 스타일은 그 크기가 약화되고 대신 소매가 다시 강조되면서 1890년대에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으로 변하였다. 아르누보 예술 운동 시기의 복식은 버슬의 거대한 부풀림이 사라지고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한 아워글라스 실루엣과 S 커브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Boucher, 1987, p. 360).

아르누보 스타일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형태적 과장 현상을 Delong의 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개방형이며, 몸의 곡선을 살린 복식은 시선을 그 곡선을 따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복식의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게 하는 전체형, 입체형의 특성을 갖는다. 형태, 색, 재질, 문양 전반에 걸쳐 각 조형요소가 유사하게 형성된 복식의 내부형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전체와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관찰되는 전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레이스, 리본, 꽃, 깃털과 같은 불분명한 가장자리를 지닌 트리밍을 이용한 과도한 표면장식은 복식에 깊이감을 주는 동시에 복식의 개방형과 불명료형을 극대화하였다.

IV. Delong의 지표적 고찰에 따른 형태적 과장 현상과 유형 분석

Delong의 지표적 고찰에 따른 형태적 과장 현상을 역사 복식에서 보여주는 사례로 고찰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역사복식의 실루엣의 형태적 과장을 형성하는 인공물은 대표적으로 코르셋과 파팅게일, 버슬, 크리놀린 등의 스커트 버팀대, 인체의 일부분을 확대시키는 패드 등이 있다. 역사 복식은 신체의 윤곽, 주름, 뼈대의 시스템을 반영하고 그것을 강조하며 신체와 복식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창조하였다. 복식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공간은 복식을 통해 신체의 외형을 과장하였는데, 과도한 패딩과 부풀릴 수 있는 패널, 지나친 장식 등은 신체 원래 지나고 있던 실루엣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였다(양희영, 2007).

둘째, 형태적 과장 현상에 있어서 장식은 과장 디자인을 더욱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인공물로 형태를 구축한 후에 장식되기도 하고 또한 장식을 통하여 과장의 형태를 형

성하기도 한다. 소재·장식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장식은 조형적인 과장이 이루어진 후에 디테일과 트리밍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표현되는데 의상 위에 덧붙여진 아름다운 스모킹, 셔링, 플리즈, 레이싱, 애플리케, 자수 등은 귀족적인 화려함과 함께 우아하고 환상적인 의상미를 형성하였다.

셋째, Delong이 제시한 다섯 가지 개념의 쌍들은 이원적 형식을 띄고 있다. 폐쇄형의 과장 복식일 경우 그 경계선이 명확히 드러나는 명료형과 공간 분리형으로 유사한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었고, 개방형의 과장 복식일 경우 불분명한 윤곽선이 형성하는 불명료한 실루엣으로 부분보다는 전체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었다. 역사 복식은 당시 시대 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복식으로써 대체적으로 Delong이 제시한 이원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Delong의 지표적 고찰에 따른 형태적 과장 현상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첫째, 역사 복식은 복식을 통해 인체미를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시대적으로 다르게 제시되는 이상적인 인체의 모습을 구현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이상적인 인체미의 영향을 복식에 반영하기 위해 인체는 코르셋과 같은 인공적 도구 복식의 구성에 따른 재단법, 소재나 표면 효과에 의해 변형되어왔다. 이와 같이 복식으로 표현되는 몸은 역사적으로 사고체계의 변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따라, 인체의 구조적이고 물리적 성질에 머무르지 않고 복식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것으로, 복식을 통해 이상적인 인체미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역사 복식에서는 특히 과장 형태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 구조에 따른 신분, 계급의 차이와 상징적인 특성을 갖는 복식이 주를 이루었다. 즉, 복식의 한 부분을 극대화 시키고 극단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며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여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 복식의 과장 현상은 인위적인 실루엣을 창조하여 인체를 은폐하고나 인체 부위를 재구성함으로써, 과장이 이루어진 부분을 과잉 장식하여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을 풍만하게 강조하고, 가는 허리와 대조적으로 커다란 힘을 강조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여성의 성적 부위를 눈에 띄게 하는 실루엣이었으며, 여성성을 드러내는 버슬형태와 S-커브 형태의 과장 복식은 여성의 관능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능성을 강조와 함께 과장을 통해 확대된 공간에 심미적 장식성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의 역사 복식은 각 시대마다 특정한 선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당대의 시대정신과 미의식이 반영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형태적 과장 현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Delong의 지표적 고찰에 따른 형태적 과장 현상과 유형 분석

| | | 역사복식 | | | | | | |
|-----------------------|---|---|---|---|---|--|---|---|
| | | Renaissance Style | Baroque Style | Rococo Style | Romantic Style | Crinoline Style | Bustle Style | Art Nouveau Style |
| 형태적 특성 | 실루엣 | 정교하고 웅장한 X 실루엣 | 부조화적 장식 X 실루엣 | 여성적 섬세한 장식 X 실루엣 | 수평적 X 실루엣 | 스커트 폭의 극대화 X 실루엣 | 투피스 형태 과도한 장식성 | 유동적인 곡선 S 실루엣 |
| | 소재 색채 |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소재의 사용 | 부조화적 장식 | 광택소재와 부드러운 색채 | 소재의 중첩효과와 상대적으로 명료한 색채 | 틀의 투명성과 중첩을 통한 표현 | 과도한 레이스와 부드러운 색채 |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와 색채 |
| | 상호 작용 | 인공물과 장식을 통한 과장 형태 | 다양한 방향의 과장 형태 | 소재를 통한 입체형 실루엣 | 두꺼운 소재로 명료한 형태 | 크리놀린을 이용한 형태과장과 섬세한 장식 | 소재의 중첩효과를 통한 형태 | 구조적 형태와 소재를 통한 시각적 운동감 |
| 대표적 이미지 ³⁾ |  |  |  |  |  |  |  |  |
| | | 그림 1 Renaissance Style | 그림 2 Baroque Style | 그림 3 Rococo Style | 그림 4 Romantic Style | 그림 5 Crinoline Style | 그림 6 Bustle Style | 그림 7 Art Nouveau Style |
| Delong의 지표적 고찰 | 형태적 과장 현상 | 폐쇄적 형태의 완전성 추구 평면적 장식을 통한 부분형 | 움직임에 따른 개방형 부조화적 장식의 불명료형 | 여성적 볼륨감의 개방형 섬세한 장식의 입체형 | 폐쇄적 형태를 통한 르네상스적 이상미 추구 | 스커트 폭의 극대화와 움직임에 따른 개방형 소재의 불명료형 | 폐쇄형과 개방형의 공존 구조물을 통한 입체형 | 곡선적 유연성을 통한 공간통합형 장식적 불명료형 |
| | 유형 분석 | 시대적 이상미에 따른 복식미의 추구 부와 권력 상징의 수단 심미적 장식을 통한 형태적 과장 | | | | | | |

V. 결론

패션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과장 현상을 분석할 때 제작자, 착용자, 해설자의 다양한 관점은 복식에 있어서 과장 현상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형태적 과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복식의 형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복식의 형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체계적인 틀을 통한 과장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형태적

과장 현상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형태적 과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시지각적 분석은 조형 예술의 시형식 개념에서부터 고찰하였다. 예술 양식에서 Wölfflin의 시형식의 기초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복식을 고찰한 Delong의 복식 조형을 보는 시각이 본 논문의 과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적 틀이며, 이에 따라 과장 형태의 복식을 분류하였다. 형태적 과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Delong의 다섯 가지 대립 쌍을 역사 복식에 대입하여 지표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3) 그림출처

- 그림1. The Book of COSTUME By Millia Davenport,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p. 447.
- 그림2. The Book of COSTUME By Millia Davenport,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p. 572.
- 그림3. 『Madame de Pompadour, 1758』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 그림4. Kyoto Costume Institute(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yoto: TASCHEN. p. 191.
- 그림5. Boucher, Françoise(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p. 280.
- 그림6. Kyoto Costume Institute(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yoto: TASCHEN. p. 247.
- 그림7. Kyoto Costume Institute(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yoto: TASCHEN. p. 298.
- 그림8. Kyoto Costume Institute(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yoto: TASCHEN. p. 339.

Delong 이론의 지표적 고찰을 통해 역사 복식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형태적 과장 현상이 두드러진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폐쇄적이고 정적인 명료형이며, 부분형, 공간분리형, 평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 복식은 유사한 시형식으로 분류되며 불명료하고 다양한 장식으로 인한 개방형, 전체형, 공간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릴, 러플, 리본, 루프와 같은 디테일은 깊이감과 입체감을 부여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로맨틱 시대 복식의 형태적 과장 현상은 르네상스 시대 복식과 유사한 폐쇄형과 부분형, 공간 분리형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소매 디자인이나 장식의 면에서 입체형과 불명료형의 특징이 고찰되었다. 크리놀린, 벤틀, 아르누보 시대 복식은 전체적으로 화려함과 장식성이 강조된 비구축적인 형태의 개방형, 화려한 장식과 소재의 중첩으로 전체형, 공간통합형, 입체형, 불명료형의 특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형태적 고찰을 통하여 역사복식에서 보여지는 과장현상은 시대적 이상미에 따른 복식미를 추구함과 함께 부와 권력 상징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미적 장식을 통한 형태적 과장현상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Delong의 이론은 복식의 형태를 분석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다의적인 과장의 조형적 형태와 그 내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고 사려되며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고경숙(1998). 패션에 나타난 폐쇄형디자인과 개방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주영(1992). 복식조형의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평면성과 입체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디자인사전(2000). *The Dictionary of Contemporary Design*. 서울: 안그래픽스.

성광숙(2003). 복식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주영(2007).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와 시(視) 형식-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 회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희영(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수진(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과장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홍숙(2002).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Boucher, Françoise(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Davis, M. L.(199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 **복식의 시각 디자인**. 이화연, 손희영, 노희숙(공역). 서울: 경춘사. (1980년 원저발간)
 Delong, M. R.(1997). *The Way Look*. Iowa: Iowa Univ. Press.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금기숙(역). 서울: 이즘. (1987년 원저발간)
 Kyoto Costume Institute(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yoto: TASCHEEN.
 Laver, J.(2002).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Mackrell, A.(2005). *ART AND FASHION*. London: Batsford.
 Wölfflin, H.(2006)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München: Schwabe & co. **미술사의 기초개념: 근세 미술에 있어서의 양식발전의 문제**. 박지형(역). 서울: 시공사. (1984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10년 1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4월 21일